

고은 불교 대하소설

제물포를 찾아서

그들이 배안에 물이 드는 것을 몇바가지 퍼낸 뒤 어리굴 개펄에 배 밑창이 파묻힐 만큼 고정시키고 불에 밥을 다다자 쌀물때의 개펄의 개들이 재빨리 도망쳤다.

우녀에게는 그 개들이 "웬 인간들이 우리 구멍들을 짓밟아 매웠느냐"하고 항의하는 소리와 "해해 너희들이 아무리이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다해도 다음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쌀물 개펄이나 차지하거라"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빈 개펄의 굴은 지대를 걸어가면서 영문 모르게 얼굴을 붉힌 것은 바로 그런 개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우녀의 사정을 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녀가 개들의 말에 화답하는 뜻으로 "하기야 왕도 짐승도 어찌 씨가 따로 있더냐. 너희들이 나였고 내가 너희들 중의 어떤 놈이겠지?"라고 한 독백을 그냥 지나친 것이다.

그들이 잘 다져진 것 같은 개펄을 지나서 모래밭에 들어섰을 때 그 모래밭 마른 갈대숲 한쪽으로 상복(喪服)입은 아낙네와 떠꺼머리 총각이 서로 사이를 두고 맞서 있었다. 대번에 드러낸 짐작되는 바는 이 부근의 바닷가 언덕에 지아비를 묻은지 얼마 되지 않은데 혼자 지아비 무덤이라도 살펴보고 싶어서 나온 청상과부와 그녀의 뒤를 밟아 온 이웃마을의 대담한 총각이었다.

그러나 청상과부는 소리를 치려하다가 행여 저쪽 언덕에 있는 무덤 속의 지아비가 들을까봐 입을 껌뻌듯이 꼭 다물고 있었다. 그 낮 익은 총각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눈을 치뜨고 있어야 하였다.

이 광경에 인담이 달려 가려는 것을 우녀가 막았다. 낮게 말하였다.

"놔두시오. 수사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 총각 녀석이 틀림없이 무슨 짓거리 할 것 같소."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몇마디 속삭이는 소리가 얼핏 그쪽 갈대밭 너머의 귀에 스쳤는지 총각이 갑자기 긴장된채 뒤 돌아다 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지나갔다. 갈대밭에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한 속으로 총각의 말이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꼭 유동덕 거기를 데리고 이 고장을 떠날 작정이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아비를 묻은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지아비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언제까지나 지아비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리 작작 하오. 지금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안 살게 하지 않는다 그말이오... 웬만한 사람들은 남자가 눈맞아 타관으로 저 강원도나 함경도 산중 화전(火田)살이하러 떠나는 것을 모르시오? 여기 있어보아야 병들어 저승 갈 일 밖에 없소. 거기의

남군도 벌써 저승사람이 아니오?... 여기 있어보아야 볼 나를 나기 전에 허기져 쓰러질 일 밖에 더 무엇이 있오?"

떠꺼머리는 머리 뺀 것이 바람에 더 헝크러지며 마구 이 말 저말을 되는데로 내뱉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부는 그런 입에 범어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거세어졌다. 무슨 대수가 나오겠는가.

총각만이 헛바다에 펄펄 살아서 말을 이었다.

"보름날밤 칠포 술밭으로 나와요. 이제부터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니까."

보름날이라면 며칠 남아 있지 않았다. 여자는 지아비를 묻어 장사지낸지 10일도 채 안되는 처지였다. 차라리 깃들



14

버린 그녀였다. 아침 나절에 먼 데 출타할 일이 있어서 두루마기를 입다가 갑자기 코피를 한 바가지 쏟으면서 쓰러진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을 밤중의 이불속에서 복상사라

것이다. 사실인즉 지아비는 성불구였음에도. 그녀는 그런 빈 손과 같은 지아비를 숙없이 땅에 묻고 나서 더욱 죄어드는 입밖에 이길 수 없었던 터라 입에 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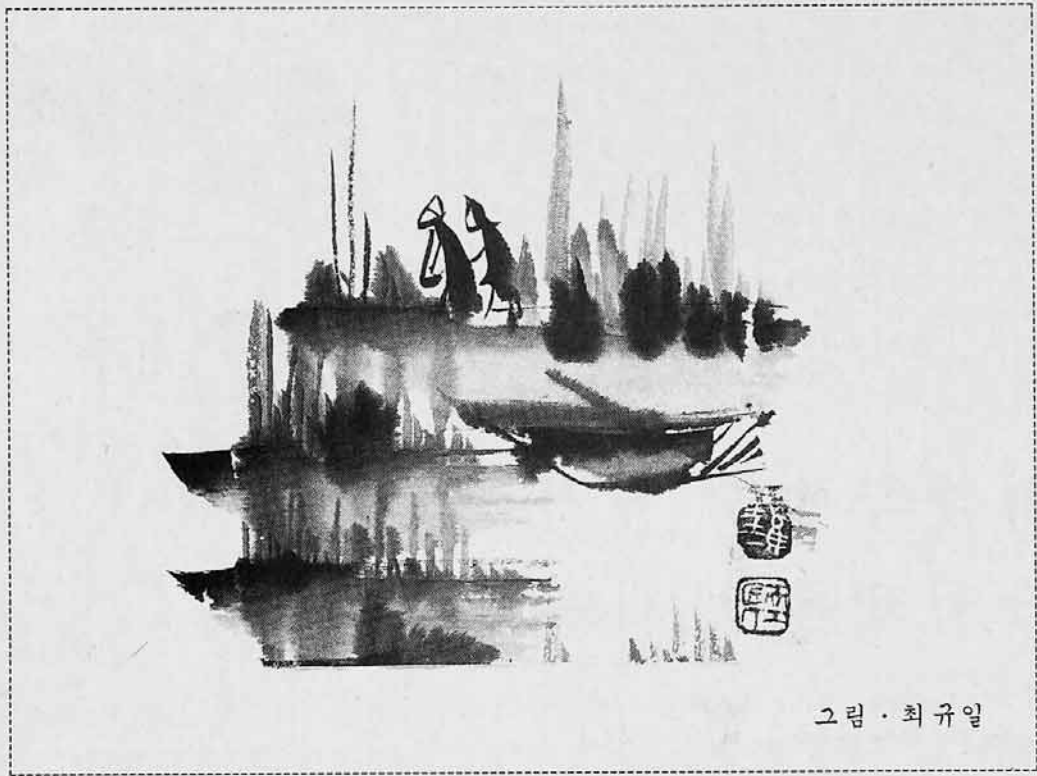


그림 · 최규일

인담과 우녀가 모래밭에 들어섰을때 상복입은 아낙네와 떠꺼머리 총각이 서로 사이를 두고 맞서 있었다

을 남겨 두지 않을 것이었다. 도대체 시집 온지 2년만에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아비의 급사(急死)라 시집 가관(家眷)들의 눈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상을 당한 쪽이 죄인노릇을 하는 것이 오랜 전래의 풍속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풍속을 넘어서는 중죄인이 되어

도 한 것처럼 죽은 시각도 제멋대로 바꾸어 오밤중에 갑자기 숨졌다고 떠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1년이 넘자 왜 배속에 씨가 들지 않느냐고 닥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지아비는 이런 닥달에 지붕의 박이 달을 바라보듯 기만히 있었던

물고 자진한 생각을 굳힌 나머지 마지막 으로 무덤이나 한번 와 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먹서리에 주섬주섬 시든 능금과 밤 대추 꽃감 따위를 담아 이고 여기에 왔던 것이었다.

그런 비정한 성묘길을 뒤따라 나타나 지아비 무덤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이웃마을을 떠꺼머리가 도망치기를 강요하는 지경이었으므로 새로운 기로(岐路)에 들어서게 되었다.

"번저 가오."

라고 총각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에 청상과부는 먹서리에서 쏟아진 것들을 그대로 두고 빈 먹서리만 들고 일어났다. 누런 소복의 무덤치마가 유난히 바람에 펄럭거렸다.

보고 있었다. "아앗!"

하고 그는 뱃구리에서 꺼내는 큰 소리를 질러댔다. 갑대들은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 사내의 땀 범어진 몸집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다.

우녀가 인담의 어깨쪽지를 쳤다.

"망상(妄想) 버리고...우리도 떠날시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산까지 가는 육로 한나절 내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서산에서 당진 함역을 거쳐 운양에 이르는 동안 배에 집어넣은 것도 없거니와 입에서 나온 말도 없었다. 그야말로 우녀가 말한 바 포옹의 힘으로 거기까지 온 것인가. 더구나 그들은 기막힌 사연으로 전개될 남의 수작을 목격하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가하면 뜨겁게 달아올라야 하는 체열으로 청상과부와 떠꺼머리를 대리(代理)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인내가 좀 풀어지는 상태에서 그들의 걸음걸이는 좀 느려지게 된 것인지 몰랐다.

칠포의 어부에게 공배를 내려해서 어디만큼이라도 뱃길을 갈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초의 뜻을 저버린채 그저 걸음만 재촉하게 된 것이 이런 육로인 것이다.

운양에서 평택까지의 행던그림한 들판은 그들의 걸음을 무척이나 더디게 하였다. 남자인 인담쪽이 벌써 노독(路毒)이 울랐는지 걸음이 느려졌다.

평택의 앞으막한 언덕을 바라보면서 안정한 냇가의 한 남작집에서 찬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탁발승에게 시주하지 않는 별로 흥년이 세번이나 들었다는 이 지역 헛 소문 때문인지 한쌍의 객승에게 그 찬밥 대접은 그 집으로서서는 융숭한 것이었다.

쉬는 것은 짝아야 한다. 너무 오래된 뒤에는 걸음걸이가 여간 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여행조차도 우녀가 이끌고 인담은 따르는 처지로 되었다.

그들은 몇마디 주고 받은 사소한 말 이외는 어떤 정다운 대화나 수행의 결실인 고답적인 문답도 없이 제물포에 이르

렀다. 무엇보다 배가 고픈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정과는 상관없이 제물포에는 여기저기 학(鶴)이 많이 보였다. 소나무마다 하얀 학들이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것이나 바닷바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학의 품위있는 비상(飛翔)이나 다 큰 고장의 풍경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두사람은 그런 술밭으로 된 언덕을 넘어갔다. 난데없는 포플 세사람이 급히

그때 우녀가 나섰다 "도둑질이라면 큰도둑입니다 부처를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달려와서 그들을 제지하였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것들인가?"

"네 총칭도 중이옵시다. 저 아래 객주에 불 일이 있어서입니다."

"중이 객주에는 무슨 불일인가?"

포플들이 두 사람의 몸과 훌쩍한 걸망속을 거칠게 뒤져보았으나 별다른 것이 담겨져 있을 리 없었다. 뒤진 자는 뒤진 보람이 없을 때 화를 내는 법이다.

"너희들이 중이냐? 아니거든 두 년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도둑질을 하는 길이었다?"

그때 우녀가 나섰다.

"도둑질이라면 큰 도둑질입니다. 부처를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어어어!"

하고 한 포플이 놀라는 척 하였고 한 포플은 그 포플을 잡아다냈다.

"어서 가세. 놈들을 영영 놓칠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쫓고 있던 대상을 떠올리게 되자 두사람 따위는 검볼로 여기는지 "어서 가보아"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인담은 제물포 처자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그의 머리속에 잠겨있던 어리굴 개펄 갈대밭의 청상과부와 떠꺼머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뒤늦게 지워졌다. 그만봄이듯 저자는 사뭇뻘하였다.

있는 것은 활기였고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죽음인가. 심지어 저지에서 자주 퇴박을 맞는 이런 거지들조차 내지르는 비명이 우렁찬 것이었다.

여기에 접어들자 인담이 앞장서서 객주를 물었다. 객주는 덩그렇게 높은 2층짜리 기와집채가 앞채였고 2층에 있대어진 회랑의 창고들이 넓은 안마당을 이루어놓고 있었다.

"객상주인(客商主人) 어른을 찾아보러 왔습니다만"이라고 서기(書記)에게 통기하였다.

"무슨 일인가?"

"네 값을 것이 있습니다."

"값을 것이라... 그렇다면야 어서 만나 뵈게 해야지."

그 서기의 뒤를 따라 2층짜리 높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현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몇개의 거간(厓間)길의 중문을 지나서 그 깊은 안채에 가서야 멈추었다.

FM 89.9 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 MHz

FM 89.9 MHz

불교부산방송 2월 1일 개국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부산방송이 2월 1일 개국합니다. 불교부산방송 설립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던 전국의 2천만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불교부산방송이 개국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주신 부산, 경남지역 불자님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부산, 경남지역 불교발전의 새지평을 열어가길 불교부산방송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95년 3월 1일 개국하는 불교광주방송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불교방송 임직원 모두는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

■ 불교부산방송 후원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NO	성명	구좌번호	계금주
1	서민은영	129-01-0000-650	불교방송
2	김영중영희	905-17-001278	불교방송
3	한영희	001-04-0130-761	불교방송
4	부산은영	020-13-000218-6	불교방송
5	이영희	050-13-25048-2	불교방송
6	한영희	041-173791-13-201	불교방송

* 후원성금 문의전화 : 051-644-5114, 5221



BBS 불교부산방송
부산 동구 범일동 833-13 보성빌딩 10, 11층 전화 : 051-644-5114 팩스 : 051-644-5233

서울FM101.9MHz 부산FM89.9MHz 광주FM89.7MHz